

대전 탄옹공종중 道山학술연구원

제12회 학술발표회‘ 道山서관 에서 열어



▲도산학술연구원의학술발표회가열리고있다.

대전시 서구 탄방동 도산서원道山書院 경내의 탄옹炭翁 권시權諱 선생 묘하에 있는 도산서관道山書館 강당에서 4월 20일 도산학술연구원道山學術研究院의 제12회 학술발표회가 열렸다. 회는 10시 30분에 관계 인사 70여명이 참석하여 시작되고 강연은 10시 50분부터 11시 40분까지가‘ 탄옹권시炭翁權諱 선생 예사상禮思想 ’이라는 주제로 경북대 김시항金時晃 명예교수의 것이, 11시 50분부터 12시 40분까지가‘ 충렬공忠烈公 권순장權順長과 병자호란丙子胡亂 ’이라는 주제로 김경수 慶雲대 교수의 것이 발표되도록 되어 있었는데 김시항 교수가 발표장으로 오는 도중에 교통사고가 발생해 도착이 늦어져 김경수 교수의 것이 뒤바뀌어 먼저 발표되었다.

도산 학술연구원은 만회晩悔 권득기權得己·탄옹 권시 부자 양선생을 제향하고 있는 도산서원道山書院의 부설로 그 뜻을 이어 1992년에 창립되었다. 도산서원은 대전시 서구 탄방동 274의 1번지에 소재한다. 이러한 연구원은 창립된 이래 매년 학술발표회를 열어왔고 그

주관은 양문종이 번갈아 하여 왔는데 이번에는 탄옹문종이 주관하여 12회를 맞게 되었다. 회는 동연구원의 연구이사 성봉현씨 사회로 열렸고 먼저 연구원의 권태원權兌遠 원장이 개회 인사말을 하였다. 인사말에서 권태원 원장은, 탄옹 권시 선생의 대전 문종과 경기 성남시 금곡동에 있는 만회 권득기 선생 문종에서 힘을 모아 2005년 7월 22일 이곳에 약 100여평의 도산서관을 건립하였으며, 이 서관에는 명현의 학문과 사상을 전하는 문집류와 실록·사전류 등 인문사회과학 도서를 소장하고 있으니 많은 이용을 바란다는 요지를 공지해 하였다.

김경수 교수의 발표강연 ‘ 병자호란과 충렬공 권순장 의 요약문은 ‘ 머리말 · 권순장의 가계와 생애 · 병자호란의 전말과 권순장의 순절 · 맺음말 ’로 되어 있었다. 김경수 교수는 ‘ 권순장 선생은 31세에 순절한 관계로 남아 전하는 자료가 거의 없어 연구에 어려움이 있다.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나고 44년 만에 병자호란이 났는데 이는 우리 민족 미증유의 사건이다. 당시 문신학자인 권순장

선생은 강화도를 지키고자 의병모집을 주도하고 의리와 명분에 따라 살신성인殺身成仁을 실천하였다. 기왕에 병자호란을 국가적 차원의 전쟁, 즉 거시적 입장에서 접근해온 연구의 틀에서 벗어나 전쟁에 대한 개인의 입장과 태도, 순절의 정신적 · 사상적 배경에 대해 이해하는 미시적微視的 입장의 분석이 권순장에 대해 이해하는 연구가 될 것으로 보았다 ’는 요 지 를 말 했 다 . 권 순 장 [1607~1637]의 본관은 안동, 자는 효원孝元, 호는 수와睡窩이고 아버지 진기盡己와 어머니 의령宜寧 남언경의 딸 사이에서 3남1녀 중 장남으로 선조 40년에 태어났다. 총명하여 18세에 진사에 입격하고 음보로 의금부도사 · 건원릉참봉 · 빙고별제氷庫別提 등에 제수되었으나 나가지 않고 인조 5년에 아버지 판서공이 병으로 개성유수開城留守에서 돌아오자 극진한 간병으로 단지斷指하였다. 30세 때인 1656년에 호란이 나자 어머니와 가족을 데리고 강화로 피난하였는데 이듬해 청군淸軍에 의해 강화가 함락되자 김상용金商容 등과 함께 순절함으로써 짧은 생애를 마감한다. 이같은 행동은 조선 중기 의리와 명분을 생명시하는 성리학자의 정형으로 국가와 민족의 수치를 참을 수 없던 심정을 분사憤死의 방식으로 그 의리를 실천한 실례가 된다. 사후에 인조는 그에게 지평持平을 증직하고 자손을 녹용했고 숙종은 이조판서로 가증加贈했다가 좌찬성으로 추가증하고 충렬忠烈의 시호를 내렸으며 영조는 충신정려忠臣旌閭를 명하고 정조는 부조지전不祧之典을 내렸다. 그 묘소의 신도

비는 비문을 송곡松谷 조복양趙復陽이 짓고 약천藥泉 남구만南九萬이 썼으며 신익상申翼相이 전篆하였다.

김경수 발표자는 ‘ 정치학에서는 지도자의 유형을 경세가와 전략가로 나누는데 전자는 개인이나 집단의 이익을 떠나 민족이나 국가의 이익을 도모하는 사람이고 후자는 개인이나 집단의 이익을 추구하며 민족 · 국가의 이익에는 무관심인 채 자기 목표를 위해 책략과 중상을 일삼는 사람 이라 정의하면서 ‘ 충렬공 권순장의 행동은 경세가에 속한다. 오랑캐의 침략에 맞서 순절한 정신은 효종 때 전개된 북벌론과 예학사상 흥기의 정신적 배경 형성 가운데 하나라 할 수 있다 ’고 정리했다.

김시항 교수의 ‘ 탄옹 권시선생의 예학사상 은 ‘ 머리말 · 탄옹선생의 생애 · 탄옹선생의 예학사상 · 맺는 말 ’로 되어 있는데 그 생애를 말하면서 ‘ 탄옹은 선조 37년, 1604년 12월 25일 경오庚午 해시亥時에 서울 남소문동南小門洞 집에서 출생하고 6세에 어머니 이씨의 죽음을 슬퍼한 것으로부터 69세 현종 13년, 1672년 정월 24일 정침에서 고종考終했다. 사후 3월에 대전 보문산普文山 남록사정沙汀 언덕의 한림곡翰林谷에 장사하고 현종 14년에 의정부 좌참찬에 추증되었으며 숙종 18년, 1692년에 탄방炭坊의 도산道山에 서원을 세우고 그 아버지 만회와 함께 부자의 위판位版을 봉안奉安 하기까지 연보를 해설 발표하였다. 그리고 탄옹의 예학사상은 이를 3대별하여 ①상소사上疏辭, 걸퇴乞退로 일관한 관직 생활 ②예학의 대가로 인정 ③선생의 예학 개관으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상소사, 걸퇴의 관직생활에서 ‘ 탄옹에게 처음 벼슬이 내린 것은 33세 때 인조 14년에 대군사부大君師傅로 천제薦除되

자 사양하는 소를 올리는 것을 시작으로 66세까지 한번도 관직을 받아들인 적이 없다. 왕이 불허하면 재소 · 삼소 · 사소를 거듭하여 34년 동안 무려 70회의 사소를 올렸다. 탄옹과 효종의 관계를 실록에서 살펴보면, 조정에서 임금을 섬김이 어찌 지극한 소원이 아니겠습니까마는 신의 아비가 과거급제를 바라지 말고 벼슬을 원하지 말라 하였으므로 물러나 분수를 지키고자 하는 것이라 하면서 예기禮記 곡례曲禮에 예유삼사禮有三辭 초왈예사初曰禮辭 재왈고사再曰固辭 삼왈종사三曰終辭라 한 근본정신을 실행했다 ’하고 예학의 대가로 인정에서는 ‘ 최명길은 탄옹을 계곡에 핀 난초와 형산荊山에 묻힌 박옥璞玉에 비유하고 탄옹 46세 때 인조가 승하하자 독례지인讀禮之人으로 추천해 국상에 임하게 했다. 청음淸陰 김상헌金商憲은 인조의 시호를 의논할 때 권시 · 송준길宋俊吉 · 송시열宋時烈 · 이유태李惟泰를 역말을 태워 올려보내게 한 것이 이에 해당한다 ’ 하였다. 그리고 선생의 예학 개관의 장에 가서는 ‘ 문집 12권 중 그 목록을 중심으로 예학에 관계되는 논지를 살펴보면 여답서與答書와 상소문에 들어 있는 예설을 제외하고도 23회에 걸쳐 있다. 23세 때 매부 심지원沈之遠과 서신으로 계운궁啓運宮 상례를 논하고 이어 별묘론別廟論을 지은 것을 시작으로 변조유제가항담례辨趙有諸街巷談禮 · 유아관례의惟兒冠禮儀 · 여신독재논의례문해與愼獨齋論儀禮問解 · 강논어관중지례장講論語管仲知禮章 · 세자전칭신문제世子前稱臣問題 · 호화상례시정豪華喪禮是正 · 대왕대비복제지부당기윤선도지부당죄大王大妃服制之不當葺尹善道之不當罪 등 큼직큼직한 선생의 복제와 예절에 대한 설 과 자취를 해설하였다.

<사진 · 글 權在琮>

4면에서계속

의 8괘卦를 더하여 64괘로 만들고 패사卦辭를 지은 것으로 전해진다. 학자들은 서백이 천명을 받아 왕으로 칭해진 때는 바로 우虞 부족과 예夏 부족 사람들의 송사를 해결한 해라고 말하였다. 그후 10년이 지나서 홍薨하자 시호를 문왕文王이라 하였다. 서백은 법도를 개정하고 정삭正朔(정월 초하루)을 제정하였다. 무왕은 고공단보를 추존하여 태왕太王이라 하고, 할아버지 공계公季를 높이어 왕계王季라고 했는데, 이는 주나라의 왕이 조부태왕 고공단보로부터 흥했기 때문이다. 무왕은 즉위하자 태공망太公望(성은 강姜, 씨는 여呂, 이름은 상尙. 높여서 상보尙父)을 사師로 삼고, 주공周公(문왕의 아들 단旦), 소공召公(문왕의 서자 석奭), 필공畢公(문왕의 아들 고高) 등에게 자신을 보필하도록 하였다. 2년 후 주왕이 더욱 포악해져 왕자비간比干을 죽이고 기자箕子를 감금하니 무왕은 전차 30대와 와사 3,000명, 갑옷 입은 군사 45,000로 주왕을 공격하였다. 마침내 목야牧野의 전투에서 은의대군을 무찔러 주왕을 죽이고 주왕조를 건설하였다. 무왕은 신농의 후

손을 초焦(하남성 섬현陝縣)에 봉封(일정한 땅을 떼어 주면서 제후를 삼는 일)하고, 황제의 후손을 축祝(산동성 내무현萊蕪縣)에, 요의 후손을 개繼(북경시北京市 대흥현大興縣 서남쪽)에, 순의 후손을 진陳(하남성 회양현淮陽縣)에, 우의 후손을 기杞(하남성 기현杞縣)에 봉했으며, 태공망여상은 영구형丘(산동성 치박시淄博市 임치臨淄서북쪽)에 봉하고 제齊라고 했으며, 아우 주공은 곡부曲阜(산동성 서남쪽)에 봉하고 노魯라고 하였고, 소공은 연燕(섬서성 기산현岐山縣 서남쪽)에 봉하였고, 아우 숙선叔鮮을 관管(하남성 정주시鄭州市)에, 아우 숙택叔度를 채蔡(하남성 상채현上蔡縣)에 봉하였다. 무왕이 병이 들어 홍하하성왕成王(태자崇謫)이 어린 나이에 즉위하니 주공은 제후가 주나라를 배반할까 두려워 섭정하게 되었다. 주공의 두 아우 관숙과 채숙이 주왕紂王의 아들 무경武庚과 함께 반란을 일으키니 주공은 무경과 관숙을 죽이고 채숙을 귀양보냈다. 주공은 또 주왕紂王의 서형 미자微子 계啓에게 은의 후대를 계승하도록 송宋(하남성 상구현商丘縣)에 봉하고, 은에 남은 백성을 모두 무왕의 막내 아우 봉封에게 내리어 위강숙衛康叔(처음

에 강숙에 봉했다)가 나중에 다시 위衛에 봉함)에 봉했으며, 성왕의 아우 숙우叔虞를 진당숙晉唐叔(처음에 당唐에 봉했는데 뒤에 진晉으로 바꾸었으며, 지금의 산서성 기성현冀城縣 일대)에 봉하였다. 이러한 것을 봉건封建이라 하는데, 흔히 무왕의 아우 주공周公이 처음으로 실시한 제도라 한다. 봉건제도 뿐만 아니라 주공이 창시했다고 하는 주의 예제禮制는 후세에 원왕을 산 것이 많으나 주의 청동기문화青銅器文化나 상형문자象形文字는 은에서 발달한 것을 이어받았다. 주나라의 문화는 은의 문화에 힘입어 많은 발전을 가져왔다. 은을 멸한 후 주의 지배자는 정치·적변 동등을 하느의 뜻에 의하는 것으로 보았다. 일찍이 은에 내린 천명天命은 주왕紂王이 민심을 잃었기 때문에 은에서 떠나고 새로이 주周에 내린 것이라 하였으며, 천명을 따른 주왕조가 영속되기 위해서는 덕德을 닦고 쌓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무왕 때부터 소왕昭王 · 목왕穆王에 이르는 동안은 주왕조의 전성기였으나 마침내 기원전 9세기부터 안으로는 제후의 이반離叛이 일어나고, 밖으로는 융적戎狄의 침입이 잦아져 주는 내리막길로 들어서게 되었다. 서주제10대

여왕厲王이 체薨 땅으로 달아나 군왕이 없는 동안 주공周公(단의 후손)과 소공召公(석의 후손)이 함께 14년간 도와서 섭정한 것을 공화共和라 하는데 공화 원년이 기원전 841년으로 이때부터 중국 역사에서 처음으로 기년紀年 간지干支의 기록을 시작하였다. 11대 선왕宣王(정靜)은 융적을 격퇴하여 연때세력을 회복하였으나 그의 아들 유왕幽王은 포사褒姒를 총애하면서 내정이 문란해지니 견융犬戎의 침입을 초래하여 유왕은 살해되었다. 그의 아들 평왕平王(의구宜臼)은 마침내 도읍을 낙읍洛邑(하남성 낙양洛陽)으로 옮기고 주왕조를 부흥시켰다. 평왕의 동천東遷(기원전 771년) 이전을 서주西周라 하고, 이후를 동주東周라 불러 구별한다. 동주시대에 들어서서 약 반 세기가 지나 춘추시대春秋時代가 시작된다(기원전 722년). 춘추시대에는 제후 등의 이반으로 국내의 정정政情이 불안정하였고, 열국 간에 전쟁과 회맹會盟이 끊이지 않았으며, 제齊의 환공桓公, 진晉의 문공文公과 같은 패자霸者(제후들 가운데 우두머리)가 회맹을 주재主宰하여, 중원中原의 질서를 유지하였다. 그러나 패자는 명목상으로는 주왕실의 권위를 존중하고, 주

나라의 봉건 질서를 적극적으로 허물 어뜨리려 하지는 않았다. 기원전 5세기에 들어서자 여러 나라의 내부에서 하극상下剋上의 풍조가 일어나 그 시세에 눌려 제32대 위열왕威烈王 23년에 한韓 · 위魏 · 조趙를 제후국으로 명하였다(기원전 403년). 이해를 전국시대戰國時代의 시작으로 보는데 주나라 왕실이 봉건의 정신을 망각한 점 때문이다. 전국시대의 주나라 왕실은 낙양부근을 영유하는 한날작은 제후국에 지나지 않았고, 마침내 동서東西로 분열된 나머지 제37대 왕으로 황제로부터 51세에 해당하는 난왕赧王 희연姬延은 기원전 256년 진秦나라의 장양왕莊襄王(이름은 자초子楚로 진시황秦始皇의 아버지)에게 멸망되었다. 서주와 동주시대를 합산하면 약 867년이라는 기록이 《제왕세기帝王世紀》에 있는데, 이를 역산하면 무왕이 등극한 시기는 기원전 1123년이다. ◎원자元子: 임금의 맏아들로서 아직 세자에 봉하지 않았을 때를 일컫는다. ◎중자衆子: 맏아들 밖의 여러 아들을 일컫는다. ◎원사元士: 주나라 때 천자의 사士를 말한다. ◎적자嫡子: 정실 아내의 몸에서 난 아들.